RECIPIENTS:
Jung-Sik Kang,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Commonwealth of Australia
Moon-Kyu Bang President of Korea Export Import Bank
In-ho Lee President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CC:
Nam-Ki Hong, Minister of Strategic Finance
Eui-Yong Chung, Minister of Foreign Affairs
Jung-Ae Han, Minister of Environment

December 8, 2021

Dear all,

호주 바로사 지역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

귀하의 호주 바로사 지역 개발 프로젝트 참여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하기 위해 이 서신을 보내드립니다. 바로사 프로젝트는 매우 위험하고 큰 피해를 야기하는 프로젝트이며, 무책임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위험들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깊은 고려 당부드립니다.

-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 결여:**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의 사업자들은 사업이 티위섬 해안과 연안에 미칠 수 있는 위험들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위치에서 불과 6km 떨어진 티위섬의 원주민들에게 그 어떤 의견수렴 과정도 밟지 않았습니다. 티위섬 원주민들에게 그 어떤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 인지 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 권리도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FPIC : 관습적으로 지역사회 주민이 소유, 점유 및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지역사회가 동의/비동의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원칙)

- **환경 관련 승인절차 결여:** 바로사 가스전은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다수의 환경 관련 승인, 안전 관련 승인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산토스는 아직 다수의 인가 사항들에 대한 평가 신청도 규제 기관에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국제 국경 분쟁:** 바로사 프로젝트는 아직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사업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동티모르 해 분쟁 지역에 위치합니다. 이 점은 해당 프로젝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산토스는 동티모르 해역에서 CCS 를

운영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 조약이 존재하지 않아 호주와 동티모르간의 새로운 조약이 필요합니다.

- **막대한 환경 오염:** 바로사 프로젝트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지구 기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 LNG 프로젝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관련한 호주 정부의 배출 정책은 아직 미비한 상태인데, 이는 이 프로젝트가 미래의 정책적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산토스의 이산화탄소 포집 계획(CCS)는 법적으로 집행 불가하며, 설사 산토스가 이를 실행한다고 해도 바로사 가스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더해, 호주 및 전 세계의 CCS 사례들은 이 기술 자체가 종종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세계적인 추세 - 가스에 거리두기:** 호주의 최대 LNG 수입국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LNG 수입국인 일본은 2030 년까지 LNG 전력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그리고 많은 유럽 국가들은 해외 LNG 금융에 대한 공공 자금 조달을 중단했습니다. 호주 은행들은 바로사 가스전 같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제한하거나 방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들에 비추어, 우리는 귀 기관의 바로사 프로젝트에 참여 재고를 재차 요청드립니다.

<u>티위섬 원주민들은 이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어떤 의견수렴 절차도 없었습니다.</u>

티위섬의 전통적 소유자인 원주민들은 바로사 가스전에서 다윈(Darwin)으로 가스를 운송하는 파이프라인에서 불과 6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산토스로부터 어떠한 의미있는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못했으며,** 이는 이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UN 원주민 권리 선언'에 위배됩니다.

티위섬 원주민들은 지난 수만 년 동안 청정한 자연환경 속에서 삶의 터전을 꾸려왔습니다. 바닷물은 수정같이 맑고, 거북이는 해안선을 따라 둥지를 틀고, 다양한 물고기 떼가 헤엄치는 곳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자랑합니다. 티위섬 원주민들은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가 바다와 환경, 생계, 야생동물, 그리고 공동체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티위섬 원주민들은 해양 보존을 위한 원주민 보호 지역 (Indigenous Protected Area, IPA) 지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주민 해양 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공식적으로 호주 국립 보호 지역의 일부로 인정받게 되고, 정부의 자금 지원까지 일부 받게 됩니다.[1] 허나 바로사 가스 파이프라인은 이 보호지역을 가로질러, IUCN 카테고리 제 6 항에 따른 지역 보존 관리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가스 파이프라인에서 6km 이내에 위치한 포크로이(Fourcroy)곶은 티위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밀도가 높은 바다거북 산란지이기도 합니다.[2]

그리고 아래는 티위섬 원주민들이 귀하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

> *'Nobody told any of this that this was happening. We have not been consulted. There are going to be huge risks if this does go ahead without any consultation with the Tiwi people… We want to know why we haven't been told anything up until now.'*
>
> *- Antonia Burke, Dardawunga Impajimawu.*

>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와의 의견수렴 과정은 없었습니다. 티위섬 사람들과 상의 없이 (바로사 가스전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큰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듣지 못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안토니아 버크(Antonia Burke),*
> *Dardawunga Impajimawu.*

> *'This is my home. I've been here my whole life. I feel very worried about this pipeline, if it goes ahead it will have massive impact on our lifestyle, on the environment, it'll change everything, especially if something goes wrong… and they've got no guarantees that they're going to stay safe, I mean just the fact that the boats and ships are going to be travelling up and down, that's' going to have an impact on our waters, sea life, our food, everything like that.'*
>
> *- Therese Burke*

---

[1] Tiwi Land Council 2018, Towards a Tiwi Islands Indigenous Protected Area, p.11, https://tiwilandcouncil.com/documents/Uploads/TLC_Towards-a-Tiwi-Islands-IPA.pdf

[2] Chatto, R. & Baker, B. (2008) The Distribution and status of marine turtles in the Northern Territory.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Environment, the Arts and Sports, Darwin. (accessed 29 November 2021)
ConocoPhillips Australia 2017, Barossa Area Development Offshore Project Proposal, available at https://www.nopsema.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2021-03/Draft-for-public-comment-Barossa-Area-Development-Offshore-Project-Proposal-July-2017.pdf (accessed 29 November 2021)

'이 곳은 제 삶의 터전입니다. 저는 평생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되어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과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종국엔 모든 것을 바꿀 것인데 ... 그들은 그 어떤 안전도 담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보트와 선박들이 바다 속을 돌아다닌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바다, 해양 생물, 식량, 그리고 모든 것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테레즈 버크(Therese Burke)*

'The issue today about the gas, is we haven't been told how it's going to affect our land, what's going to happen to our seafood and I think everything is under the table. If the truth doesn't come out, we all have to say no.'

- Donna Burak

'가스와 관련해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이 사업이 우리의 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의 해산물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그 누구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 생각엔 모든 것이 테이블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진실이 테이블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NO'라고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도나 버락(Donna Burak)*

'I would say, don't invest in this, don't put your money there, because you might regret it one day, what you've done.'

– *Marie Munkara*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지 마세요. 당신의 돈을 이곳에 쓰지 마세요. 당신이 벌인 일을, 언젠가 후회할 것이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 *마리 문카라(Marie Munkara)*

<u>승인절차의 미비가 투자자 및 사업 참여자들의 재무적 리스크를 초래합니다.</u>

산토스가 2021 년 3 월에 최종투자결정을 내렸지만, 이 사업에 필요한 16 개의 주요 인허가 절차 중에 오직 3 건만 승인이 되었으며, 이는 사업 참여자들과 투자자들에 큰 재무적인 리스크를 초래할 것입니다.

바로사의 주요 승인절차의 진행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토스의 CEO 는 2021 년 10 월 28 일자로 바로사 프로젝트의 15%가량이 완성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Barossa Offshore Project Proposal – 2018. 3. NOPSEMA 승인
- Barossa Gas Export Pipeline Environment Plan – 2020. 5. NOPSEMA 승인
- Bayu Undan to Darwin Gas Export Pipeline Production Cessation Environment Plan – 2019. 9. NOPSEMA 승인
- Bayu Undan to Darwin Gas Export Pipeline Decommissioning & Preservation Environment Plan – 2020. 8. 취소
- Barossa Development Drilling and Completions Environment Plan 6/10/2021, NOPSEMA 검토 중
- Bayu Undan to Darwin Pipeline Subsea Tie-in Environment Plan, NOPSEMA – 미제출, 사전협의 절차 기한 2021. 12. 17.
- Tow out and Hook up of the FPSO Facility Environment Plan, NOPSEMA – 미제출
- Darwin LNG Onshore Operations Environment Plan, NT EPA – 미확인
- Barossa Offshore Operations Plan, NOPSEMA – 미제출
- Barossa Gas Export Pipeline Operations Plan – 미제출
- Barossa Decommissioning Environment Plan, NOPSEMA – 미제출

CCS 승인절차(산토스가 사업 추진 시)

- Barossa Gas Export Pipeline Environment Plan Revision 5/11/21, NOPSEMA – 평가 중
- Darwin Harbour Barossa GEP Environment Plan, NT EPA – 미제출
- Bayu-Undan Carbon sequestration Environment plan, ANPM - East Timor – 미제출
- Bayu-Undan Gas Export Pipeline Operation Environment Plan, ANPM - East Timor – 미제출
- Bayu-Undan Gas Export Pipeline Operation Environment Plan, NOPSEMA – 미제출
- Bayu-Undan Gas Export Pipeline Operation Plan, Parks Australia Class Approval – 미제출

<u>국경 장벽으로 인한 한계점</u>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호주와 인도네시아 간 해양 경계를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국제 법률 분쟁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유-운단 가스전은 현재 동티모르 수역 내 호주 정부와의 조약에 따라 만들어진 "공동 원유 개발 구역(JPD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흰 동티모르 정부에 이 사업을 규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지 우려스럽니다. 현재 JPDA 내 국경에 걸쳐져 진행되는 CCS 사업의 이행에 관련된 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사 가스전은 인도네시아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해당 대륙붕은 현재 상황으로는 호주의 관할 안에 있습니다.)

호주와 동티모르 간의 해상 경계는 2018 년에 확정되었지만, 인도네시아와 호주는 여전히 1997 년에 EEZ 와 해저 경계를 확정하기 위해 합의한 '퍼스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3] 해상 경계를 확정하기 위한 두 국가 간의 논의는 2019 년에 다시 시작됐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4]

그러나 동티모르와 호주간 새로운 해상 경계에 대한 비준이 이뤄지면서,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도 '퍼스 조약'에 따라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일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생긴 상황입니다.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기후위기를 가속할 것이고 CCS 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사 프로젝트의 막대한 탄소 그림자에 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바로사 프로젝트 제안은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 도 이내로 유지하는 목표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후위기가 초래할 최악의 영향을 피하기 위한 노력과도 양립 불가능합니다.

산토스는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신규 가스전에 대한 투자 중단을 촉구하고, 세계 여러 국가들과 공공 금융기관들이 제 26 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6)에 모여 신규 화석연료 개발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 중단을 약속한 시기에 바로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5]

---

[3] AustLII, Treaty between th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establishing an Exclusive Economic Zone Boundary and Certain Seabed Boundaries (Perth, 14 March 1997), http://www.austlii.edu.au/au/other/dfat/treaties/notinforce/1997/4.html (accessed 29 November 2021)l

[4] Troubled waters? Australia-Indonesia maritime boundary in the news', *The Interpreter*, 2 June 2021,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troubled-waters-australia-indonesia-maritime-boundary-news (accessed 29 November 2021)

[5] 'No new oil, gas or coal development if world is to reach net zero by 2050, says world energy body,'*The Guardian,* 18 May 2021, available at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1/may/18/no-new-investment-in-fossil-fuels-demands-top-energy-economist (accessed 29 November 2021).

IEA 의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전세계의 LNG 교역량은 2040 년까지 50%보다도 더 떨어지며, 그 중에서도 호주의 LNG 수출은 더 빠르게 감소합니다. 이는 심지어 기존의 자산들까지 좌초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IEA 로드맵이 CCS 의 역할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다른 부문들에서 활용되며, 신규 가스전을 위한 구실로 활용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시나리오에서도 바로사 가스전은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산토스는 바로사 프로젝트가 코노코필립스(ConocoPhilips) 모델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 25%이 감소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6] 설사 이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극심한 오염을 야기하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란 점은 변함없습니다.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바로사 가스전의 이산화탄소(CO_2) 함량은 매우 높습니다. (18vol% CO_2) – 이는 호주에서 바로사 가스전 다음으로 2 번째로 CO_2 함유량이 높은 가스전의 두배 수준입니다. [7]
- 바로사 프로젝트의 CO_2 배출의 대부분은 연소 과정에서 나오는데, 이는 포집하기도 어렵고 비쌉니다.
- 가스의 주 성분인 메탄은 단기간으로는 CO_2 보다 100 배가량 더 강력한 온실효과를 유발하며, 가스의 전체 공급체인을 거치며 다량의 탈루 배출이 이뤄집니다. [8]
- 만약 건설된다면 바로사 가스전은 호주 내에선 가장 탄소 집약적인(그리고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오염이 많은) 가스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9]

산토스가 CCS 를 바로사 프로젝트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가스전의 막대한 **CO_2** 배출을 포집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산토스는 CCS 를 포함하는 프로젝트에서 성공한 경험이 일절 없는 회사입니다. 지난 9 월, 산토스는 남호주 뭄바(Moomba)에서 진행되는 연간 170 만톤 규모의 CCS 사업에

[6] 'Santos fails to back up Barossa emissions reduction claim', *BoilingCold*, 23 June 2021, https://www.boilingcold.com.au/santos-fails-to-back-up-barossa-emissions-reduction-claim/
[7] John Robert, 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 *How to Save the Barossa Project From Itself: Carbon Capture and Storage Will Not Help as Barossa Gas is High CO-2 Gas,* available at https://ieefa.org/wp-content/uploads/2021/10/How-To-Save-the-Barossa-Project-From-Itself_October-2021_3.pdf (accessed 29 November 2021).
[8] Jubilee Australia Research Centre, Environment Centre NT, The Australia Institute, *Barossa Area Development Offshore Project Proposal, Submission to the 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18, available at https://www.jubileeaustralia.org/storage/app/media/uploaded-files/jbic-submission-on-santos-barossa-project-2021.pdf
[9] Jubilee Australia Research Centre, Environment Centre NT, The Australia Institute, *Barossa Area Development Offshore Project Proposal, Submission to the 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18, available at https://www.jubileeaustralia.org/storage/app/media/uploaded-files/jbic-submission-on-santos-barossa-project-2021.pdf

최종투자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업은 산토스가 추진하는 첫번째 CCS 사업으로, 바로사 가스전에서 배출되는 540 만톤의 온실가스에 비하면 ⅓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10]

산토스는 바유-운단 가스전의 시설과 파이프라인을 CCS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2025 년에 시작하는 일정으로 다시 제안하는 방법을 찾고 있으나, 이런 유형의 프로젝트가 이행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11] 산토스는 바로사와는 일절 관계없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여 바유-운단 CCS 사업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산토스의 2040 년 탄소중립 달성은 실패할 것이며, 탄소중립 가스로 인식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12] 전체 프로젝트 배출량의 작은 부분만 포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큰 CCS 프로젝트가 호주에서 진행됐고, 아주 크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르곤 CCS 프로젝트의 첫 5 년간의 운영 기간 동안, 모든 CCS 의 공정이 동시에 이뤄졌던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셰브론은 CO_2 배출량의 80%를 포집하도록 요구받았지만, 애초 계획량의 30%만을 포집했을 뿐입니다.[13] 그 결과 셰브론사는 규제당국으로부터 벌칙(penalty)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령 CCS 가 제대로 작동했다 하더라도 CCS 를 통해 저감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은 생산된 천연가스의 전 주기 온실가스 배출의 작은 부분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바로사 가스전의 공동사업자인 SK E&S 는 이미 많은 양의 LNG 를 고르곤 가스전으로부터 사들이고 있으며, 이미 실패한 CCS 사업의 문제점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셰브론의 고르곤 CCS 사업은 상류부문 개발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시도됐던 비싸고도 성공하지

---

[10] John Robert, 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 *Should Santos' Proposed Barossa Gas 'Backfill' for the Darwin LNG Facility Proceed to Development?*, p.12, https://ieefa.org/wp-content/uploads/2021/03/Should-Santos-Proposed-Barossa-Gas-Backfill-for-the-Darwin-LNG-Facility-Proceed-to-Development_March-2021.pdf (accessed 29 November 2021)

[11] John Robert, 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 *How to Save the Barossa Project From Itself: Carbon Capture and Storage Will Not Help as Barossa Gas is High CO-2 Gas,* available at https://ieefa.org/wp-content/uploads/2021/10/How-To-Save-the-Barossa-Project-From-Itself_October-2021_3.pdf (accessed 29 November 2021)

[12] John Robert, Institute for Energy Economics and Financial Analysis, *How to Save the Barossa Project From Itself: Carbon Capture and Storage Will Not Help as Barossa Gas is High CO-2 Gas,* available at https://ieefa.org/wp-content/uploads/2021/10/How-To-Save-the-Barossa-Project-From-Itself_October-2021_3.pdf (accessed 29 November 2021)

[13] ''A shocking failure': Chevron criticised for missing carbon capture target at WA gas project', *The Guardian,* 20 July 2021, https://www.theguardian.com/environment/2021/jul/20/a-shocking-failure-chevron-criticised-for-missing-carbon-capture-target-at-wa-gas-project

못했던 주요한 예시이며,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가스와 거리두기 시작하는 전세계적 흐름

말씀드린대로, IEA 의 넷제로 로드맵은 기후변화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선 LNG 의 급격한 감소와 신규 가스전 사업의 중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후변화 문제만을 봤을 때, 바로사 가스전 사업은 추진되어서는 안됩니다. 더 많은 LNG 는 곧 우리에게 필요한 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친환경 솔루션이 부족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IEA 에 따르면 심지어 '현재까지 발표된 공약'들만 봐도 가스의 수요는 감소합니다. LNG 의 리스크는 증가하고, 바로사 가스전 사업 같은 오염이 심한 사업들은 더욱 큽니다.

2021 년은 가스 관련해 많은 선언들이 나왔던 해였습니다. 예를 들어:

- 일본정부는 2030 년까지 LNG 발전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일본의 전체 LNG 수입량의 1/3 에 맞먹습니다. [14] 일본은 현재까지 전세계의 가장 큰 LNG 수입자이기도 합니다. 이는 LNG 거래에 앞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미국과 영국, 캐나다, 대부분의 유럽 주요 국가들을 포함한 30 개의 정부와 펀드들이 해외 가스와 관련한 공적금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 이는 시장의 기준을 정하고, LNG 사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적 금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주요 호주 은행들은 가스 사업에 대출을 제한하는 신규 정책들을 도입 중입니다. 산토스가 바로사 가스전 사업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했던 NAB 는 '그린필드' 사업에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신규 정책을 설정합니다. [16] 바로사 가스전은 완전히 새로운 '그린필드' 사업으로, 향후 이 정책으로 NAB 의 향후 신규 투자를 제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상 LNG 사업의 자본 비용은 재생에너지의 떨어지는 가격과 투자자들의 기후 리스크에 대한 우려로 늘어나는 중입니다. [17]

---

[14] "Global LNG Market Faces Shakeup From Japan's Green Shift", *Bloomberg*, 27 July 2021, available at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1-07-26/japan-s-green-ambitions-threaten-the-lng-market-it-helped-create?sref=d39KtWbu (accessed 29 November 2021)

[15] "Statement on international public support for the clean energy transition" Climate Change Conference UK 2021, available at https://ukcop26.org/statement-on-international-public-support-for-the-clean-energy-transition/ (accessed 29 November 2021)

[16] NAB, "Climate Change", available at https://www.nab.com.au/about-us/social-impact/environment/climate-change (accessed 29 November 2021)

[17] Cost of Capital Spikes for Fossil-Fuel Producers, *Bloomberg*, 9 November 2021, available at https://www.bloombergquint.com/business/cost-of-capital-widens-for-fossil-fuel-producers-green-insight (accessed 29 November 2021)

이 사건들은 바로사 가스전 사업의 좌초 리스크를 현실화하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급변하는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u>요구 사항</u>

저희는 저희의 추가적인 우려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귀 기관 간의 미팅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저희는 귀 기관에 바로사 가스전 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티위섬의 원주민들과 '자유의사에 따른 로운 사전 인지 동의' 원칙이 지켜진 조정절차(consultation)가 완료되기 전까지 모든 투자를 멈추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인권과 환경과 관련된 다국적 기업들의 OECD 가이드라인에도 저촉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 플레처 Luke Fletcher
대표 Executive Director
주빌리 호주 연구센터 Jubilee Australia Research Centre

샤 몰로이 (Shar Molloy)
공동대표 Co-Director
NT 환경센터 Environment Centre NT

커스티 하위 (Kirsty Howey)
공동대표 Co-Director
NT 환경센터 Environment Centre NT

Kirsty Howey	Shar Molloy	Luke Fletcher
Co-Director Environment Centre NT	Co-Director Environment Centre NT	Executive Director Jubilee Australia